# 진도 앞바다 제철맞은 가을꽃게 풍어

## 진도군, 現 위판양 658t · 위판고 144억 기록

## 하루 최고 15t까지 잡혀…전국 생산량 25%

진도군은 제철을 맞은 가을 꽃게가 연일 풍어를 이루면서 하루 최고 15t까지 잡히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진도 꽃게가 서망항 위판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진도 앞바다에서 제철을 맞은 가을 꽃게 잡이가 풍어를 이루고 있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꽃게잡이는 이날 현재 위판양 658t, 위판고 14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철을 맞은 가을 꽃게가 연일 풍어로 하루 최고 15t까지 잡히고 있다.

진도 꽃게 어획량은 2014년 823t(117억원), 2015년 733t(127억원), 지난해 585t(128억원)을 기록했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예년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진도수협은 전망하고 있다.

진도는 전국 생산량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꽃게 주산지이다.

조도면 해역은 냉수대가 발달해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갯바위 모래층으로 형성돼 최적의 꽃게 서식지다.

이 때문에 진도산 꽃게는 다른 지역보다 상품성이 좋아 현재 kg당 1만3000~1만5000원선으로 거래되고 있다.

진도 꽃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축제도 열린다.

진도군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임회면 서망항 일원에서 제8회 진도 꽃게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축제는 꽃게 깜짝 경매와 꽃게죽 시식회, 가요제, 꽃게 장터 등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또 부대 행사로 마당극 품바, 라이브 뮤직 콘서트, 청소년 어울마당, 유명 가수 초청공연도 함께 열린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통발로 갓 잡아 올린 진도 꽃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꽃게찜, 탕, 무침, 간장게장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꽃게 주산지인 진도 서망항을 방문해서 축제도 보고, 꽃게도 싸게 구입하면서 주변 관광지도 둘러보며 가을을 만끽하면 좋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19일 여수시는 전날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제4기 시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시민중심 관광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4기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 여수시 제4기 100인 시민위, '시민할인 · 주차난 해소' 절실

## 비정규직 문제 · 기존인력 전환 · 공채 혼용 바람직

여수시의 제4기 100인 시민위원회는 미래 관광정책을 위해서는 '시민할인 혜택'과 '주차난 해소'에 보다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여수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전문분야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채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9일 시에 따르면, 여수시 제4기 100인 시민위원회는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중심 관광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위원들은 최근 관광활성화에 따른 교통정체, 주차 문제, 음식·숙박업소 바가지요금·불친절, 쓰레기 방치, 무질서 등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시민위원들은 시민을 위한 관광정책으로 관광시설 할인혜택 부여와 주차난 해소가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관광시설·공영주차장 할인을 비롯해 관광지 주민 우선 혜택 지원, 시민 문화카드 보급 등의 의견도 나왔다.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는 박람회장·기업체 주차장 개방 협의, 해양공원 주변도로 일방통행 실시, 금·토요일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이 있었다. 또 낭만포차와 관련해 장소이전, 포차 주변 청소인력 상시대기, 무질서 단속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익기부 등을 통해 조성되는 관광진흥기금의 사용방안으로는 청소년수련관·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마을단위 소규모 주차장 건립 등을 꼽았다.

시민위원들은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냐, 채용기회의 균등이냐에 대해 분과별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전문분야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채용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현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과 공개경쟁 채용을 혼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철현 여수 시장은 "여수시 미래 관광정책의 큰 틀은 관광활성화로 시민소득과 편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여러 시민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시민과 상생하는 관광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

## 성남리 일대 125ha 규모 78억 투입 2020년 개장

무안군은 무안읍 성남리 일대 125ha 규모의 산림에 물과 향기, 바람을 주제로 하는 '물맞이 치유의 숲'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곳에는 치유센터와 치유정원, 치유숲길, 경관전망대 등이 조성되며, 2020년 개장을 목표로 7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은 최근 산림치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갖고 무안만의 특색 있는 치유의 숲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고회에서는 가족과 직장인, 청소년, 노년층을 주 대상으로 보건소와 연계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숲길, 치유정원 등 각종 시설조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무안=이기성 기자

# 장흥군, 특색 살린 관광 세계화 꿈꾼다

## 글로컬 장흥관광 아카데미 성료…관광마인드 · 자원 활용 등

장흥군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군청 회의실에서 '2017 글로컬 장흥관광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종사자 및 군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지역 관광의 세계화를 위한 관광마인드 제고 및 지역 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글로컬'이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한다.

1일차에는 지역문화관광연구센터 이경환 대표의 '장흥관광의 새로운 연출과 상상'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관광산업연구원 안세희 교수의 '장흥 맛 스타일과 식공간 연출제안', 전남도립대 박창규 교수의 '생활기능성 체험관광과 이벤트' 교육이 이루어 졌다.

교육 후에는 장흥의 맛 스타일과 식공간 연출, 생활기능성 체험관광과 이벤트' 토론회가 진행됐다.

2일차에는 우리투어네트웍스 김춘수 대표가 강사로 나서 'SNS 중심의 온라인 마케팅 활용방안', '지역 유휴공간 활용 정비 및 재생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장흥=김종민 기자

# 무안군, 양파 · 마늘 생산안정제 시행

무안군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역 양파·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안정제(가격안정제) 신청을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순까지 관내 농협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협이 신청받고 있는 생산안정제는 수급안정사업비를 운영해 참여한 농업인에게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정부(30%), 지자체(30%), 농협(20%), 농업인(20%)이 수급안정사업비를 분담하는 대신,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우선 계약체결 시 계약금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50% 범위 내에서 이자 부담 없이 계약금을 지원해주고, 그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시장 가격이 하락할 때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해준다.

또한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가격도 기존 최저보장가격보다 약 2~2.5배 더 지원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